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만성 편집형 정신 분열병)

40대 초반의 남자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도대체 이런 억울할 일이 또 어디 있느냐?”며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누군가가 알아주었으면 하고, 동시에 “잠 좀 편안히 잘 수 있게 해 달라”며 몇몇 병원을 전전하다가 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인데 혼자서 쉬는 시간이면 으레 “놓고 있네. 저러니까 흠아비 신세를 못 면하지”라고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 괴로움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며, 은행이나 관공서를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늘 자신을 비꼬느라고 “시간을 잘 지킵시다”라고 외친다는 것이었다.

또 누군가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자신의 차 앞에 긴 막대기나 돌맹이를 놓아둔다거나 동네 슈퍼 앞을 지날 때면 아주머니들이 작당을 하고 모여서 “새 장가 가려나? 새 장가 가려나?”라고 수군거린다는 것, 그 때문에 마음을 식히려고 기차를 타면 그 아주머니들이 어느새 알고 같은 기차를 탄 다른 여자들에게 알려서 “아, 새 장가 가야 한다니까!”라고 비꼬는 말을 한다고도 하였다. 한 번은 하도 화가 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느냐?”고 난리를 쳤다가 “열차 승무원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고 쫓겨났다”는 이야기 등을 늘어놓았다.

한마디 더 곁들여서, 회사 사람들과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도대체 누가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을 냈냐?”, “무엇 때문에 불쌍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느냐?”라고 따지면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나는 아니야”라고 오리발을 내미니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었다.

이 환자는 두 아이를 가진 가장인데 약 십 여 년 전에 부인이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 버리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열심히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부인이 도망가 버릴 무렵 어느 기도원인지 수양원인지 하는 무인가 시설에서 한 달 가량 수양한 적이 있었다는 말로 미루어 추정컨대 최소한 십 년 이상의 긴 병력을 가진 만성 정신 분열병 환자임을 알 수 있었다.

환자와 함께 온 어머니는 “애가 원래 성격이 매우 내성적인데 이상한 병 때문에 마누라

도 도망가 버렸고, 게다가 그것을 비판한 나머지 두 번이나 수면제로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 환자는 오랜 세월 환청과 망상에 쩌들려 이마에 골이 깊게 패어진 모습으로 초조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나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때로 ‘텔레파시’를 보내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있다”며 “그것은 전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전제한 후, “그 때문에 신경쇠약이 온 것 같으니 잘 좀 치료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는 때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 실제로 똑똑히 들리는 환청과 타인들의 말과 행동이 자신을 빗대어 비난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 관계 망상, 자신을 계속 감시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관찰 망상(觀察妄想)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늘 현실 생활과 망상의 내용이 머릿속에 함께 섞여있어서 누가 무어라 물으면 엉뚱하고 빗나간 대답을 하기 일쑤였다. 그는 타인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길 가다가 낯모르는 여고생을 한번 희롱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경찰의 감시망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 번은 경찰서를 찾아가 “나는 옛날 일을 다 반성했고 이제는 열심히 살고 있으니 제발 감시하는 일을 그쳐 달라”고 애원하여 경찰관들을 당황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후일 그는 단기간에 걸친 입원 생활을 하였으며 증상이 채 좋아지기도 전 정신병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 하는 노모에 의해 자의 퇴원하였다. 그 후에는 외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때로는 약을 잘 먹기도 하고 때로는 게을리 하기도 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거의 이해하지 못 하는 상태라서 약을 열심히 먹을 때면 “그들이 요즘에는 좀 덜 괴롭힌다”고 하다가도 약 먹는 일을 게을리 하면 “그 사람들이 또 그런다. 미칠 지경이다”라며 자살까지 생각하곤 한다.

그는 좀체 병식(病識)이 생기지 않는 만성 정신 분열병의 불완전 관해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일생을 통해 ‘그러한 상태로’ 살아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이 환자는 몇 달 후 한 번 더 입원하였으며, 역시 병에 관해 전혀 이해하지 못 하는 노모에 의해 자의 퇴원한 후 수개월 뒤에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가족들에 의하면 오후에 갑자기 무언가 사러 갔다 와야겠다며 집을 나간 후 예고 없이 자살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철도 사고라고 호소하며 철도청에 선처와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긴 정신 병력과 과거 거의 자살 기도 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자살로 종결지어졌다.